

# 제 8 장

## 엽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지선우\*·윤성욱\*\*·남호진\*\*\*·안나영\*\*\*\*·이강민\*\*\*\*\*

1. 배추
  - 1.1. 수급 동향
  - 1.2. 수급 전망
2. 무
  - 2.1. 수급동향
  - 2.2. 수급 전망
3. 당근
  - 3.1. 수급 동향
  - 3.2. 수급 전망
4. 양배추
  - 4.1. 수급 동향
  - 4.2. 수급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bsn02@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yunsw@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namho1992@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anna@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dkqka196@krei.re.kr

# 요약

## 1) 수급 동향

- 2024년 엽근채소(배추, 무, 당근, 양배추) 재배면적은 당근·양배추 재배면적은 늘었으나, 면적 비중이 큰 배추·무 면적이 줄면서 2023년 대비 2.9% 감소한 58,388ha이다.
- 2024년 엽근채소 생산량은 2023년 대비 9.0% 감소한 339만 5천 톤이다.
  - 재배면적 감소 및 생육기 기상 악화(여름철 고온 지속 등)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량이 2023년보다 감소하였다.
-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2024년 순수입량은 2023년 대비 10.2% 증가한 75만 톤 내외이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국내 가격 상승과 할당관세 영향으로 2023년보다 수입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24년 총 공급량은 순수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 감소영향으로 2023년 대비 6.1% 감소한 414만 5천 톤이다.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순수입량이 늘면서 2023년 대비 2.7%p 감소한 81.9%로 나타났다.

## 2) 수급 전망

- 2025년 엽근채소(배추, 무, 당근, 양배추) 재배면적은 2024년 대비 2.9% 증가한 60,086ha이며, 생산량은 9.4% 증가한 371만 3천 톤 내외가 전망된다.
- 2025년 엽근채소(배추, 무, 당근, 양배추) 순수입량은 2024년 할당관세 조치에 따른 기저 영향으로 전년보다 12.1%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생산량과 순수입량을 고려한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2024년 대비 5.5% 증가한 437만 2천 톤이 될 전망이다.
- 2025~2034년까지 엽근채소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연평균 0.8% 감소할 전망이다. 국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순수입량은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순수입량 증가에도 비중이 큰 국내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총 공급량은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1.1. 수급 동향

### 1.1.1. 생산 동향

- 2024년 배추 재배면적은 봄을 제외한 모든 작형에서 면적이 감소하여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 감소한 2만 9,771ha로 추정된다.
  - 전체 봄배추 재배면적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 3.6% 증가한 8,230ha였다. 시설봄배추 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불안한 여름철을 대비한 저장 수요 증가로 노지봄배추 재배면적이 늘었기 때문이다.
  - 여름배추 재배면적은 정부 수급안정대책 추진 등으로 준고랭지 2기작 면적이 확대되었으나, 연작피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의 어려움 등으로 휴경과 감자·양배추·대파 등 작목 전환 늘어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3%, 4.9% 감소한 4,964ha였다.
  -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정식기 가격이 높았으나, 정식기 고온과 폭우로 인한 포전 유실, 고사 등으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6%, 2.8% 감소한 1만 3,076ha였다.
  - 겨울배추 재배면적은 정식기 고온 및 집중호우 피해로 포전 유실, 고사 등으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6%, 1.5% 감소한 3,501ha로 추정된다.
- 2024년 배추 생산량은 대부분 작형에서 재배면적과 단수가 감소하여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3%, 4.2% 감소한 200만 7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봄배추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고 생육기(4~5월) 기상이 양호하여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늘어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1%, 14.2% 증가한 43만 1천 톤이었다.
  - 여름배추 생산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2.0%, 13.8% 감소한 19만 4천 톤이었다.

연작 피해로 재배면적 및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감소하였고, 특히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이상고온으로 여름배추의 작황이 크게 부진하였다.

- 가을배추 생산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3%, 6.4% 감소한 116만 4천 톤 수준이었다. 정식기 고온과 집중호우로 인해 실제 출하 가능한 면적이 감소하였고, 초기 생육이 부진하여 엽수가 감소한 상태에서 일조량까지 부족해 회복이 더뎠다. 결국 재배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겨울배추 생산량은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9.1%, 12.5% 감소한 21만 8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해남지역 정식기 고온과 집중 호우로 고사 및 포전 유실이 많았고 재정식 등으로 보식 진행되었으나, 이후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생육이 더뎠다. 결국 부진하였다. 또한, 12월 배추 가격 강세로 겨울배추가 조기 출하되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1 배추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2024	2023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체	면적	29,771	30,159	30,167	-1.3	-1.3
	생산량	2,007	2,098	2,095	-4.3	-4.2
봄	면적	8,230	8,096	7,942	1.7	3.6
	생산량	431	395	377	9.1	14.2
여름	면적	4,964	5,242	5,220	-5.3	-4.9
	생산량	194	221	226	-12.0	-13.8
가을	면적	13,076	13,152	13,450	-0.6	-2.8
	생산량	1,164	1,242	1,243	-6.3	-6.4
겨울	면적	3,501	3,669	3,554	-4.6	-1.5
	생산량	218	240	249	-9.1	-12.5

- 주 1) 봄배추는 시설 및 노지 결구배추와 기타배추를 모두 포함함.
- 2) 2023년 여름작형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 3) 2024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 4)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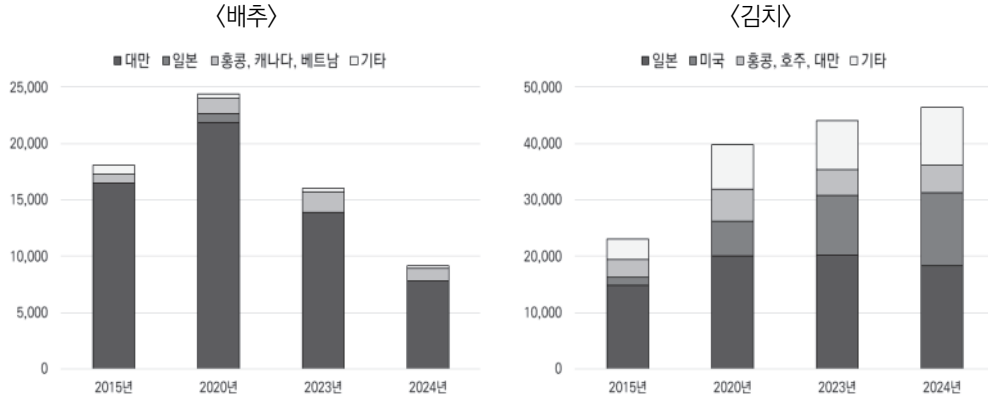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1.1.2. 수출입 동향

- 2024년 배추 수출량은 2023년과 평년보다 각각 41.4%, 58.6% 감소한 9,229톤이다.
  - 배추 수출은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24년 국내 배추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2024년 김치 수출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0%, 14.5% 증가한 4만 7천 톤이다.
  - 국내 배추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서구권 김치 수출 활성화로 2024년 김치 수출량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 2024년 배추 주요 수출국은 대만(85.6%)이었고, 김치는 일본(39.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수출국 다변화로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 과거 배추 수출물량 중 일부가 대만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반송·폐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對 대만 수출량은 감소세였으나, 2023년 12월 농촌진흥청과 대만 정부가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sup>1)</sup>함으로써 안정화되었다.
  - 김치 수출국은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유율은 2000년대 초반 90%에서 최근 40% 미만까지 낮아졌다. 반면, 2020년 초반 수출 비중이 각각 1% 미만이었던 미국(28.4%), 홍콩(2.3%), 호주(4.7%) 등 기타 국가로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024년 김치 수출 대상국은 94개국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았던 2021년(89개국)보다 늘어난 수치이다.
- 2024년 배추 수입량은 2023년(164톤)과 평년(419톤) 대비 증가한 4,135톤이다.
  - 여름철 국내 배추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5월부터 수입 신선배추에 할당관세가 시행되어 배추 수입은 크게 증가하였다.
- 2024년 김치 수입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7%, 12.5% 증가한 31만 2천 톤이었다.
  - 2024년 배추 시세 강세로 국내 김치 제조업체의 배추 수급이 어려워 김치 수입량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다.

1) 「농촌진흥청, 적용약제 확대해 배추 수출 안정화 나서」(농촌진흥청, 2023.12.26.)

그림 8-1 | 배추 및 김치 주요국별 수출량 변화



주: 배추(신선, 냉장) HS코드 0704902000, 김치 HS코드 2005991000의 실적임.  
 자료: 관세청

표 8-2 | 배추 및 김치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평년	2015	2020	2023	2024
수출	배추	22,299	18,087	24,413	15,749	9,229
	김치	41,137	23,111	39,748	44,017	47,102
수입	배추	419	317	643	164	4,135
	김치	277,055	224,124	281,187	286,545	311,570

주 1) 배추(신선, 냉장) HS코드 0704902000, 김치 HS코드 2005991000의 실적임.  
 2)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관세청

### 1.1.3. 공급 동향

- 국내 생산량과 순수입량(수입량에서 수출량 제외)을 포함한 2024년 배추 총 공급량은 2023년과 평년 대비 각각 2.5%, 2.9% 감소한 255만 4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2024년 국내 생산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3%, 5.3% 감소하였다. 이는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대부분 작형이 기상 악화로 작황 부진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2024년 순수입량(수입량-수출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0%, 7.0% 증가하였다. 이는 2024년 국내 배추 수급 불안으로 신선배추 할당관세 시행, 김치 수입 증가 등으로

2023년 및 평년 대비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순수입량이 증가하였고, 국내 생산량이 감소해 2024년 배추 자급률(김치 수출입량 포함)은 78.6%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p, 2.0%p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 수입량 증가로 배추 자급률은 2003년 100%에서 2020년대 8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21년 코로나19 발생 및 중국 김치 파동 등으로 김치 수입이 둔화되어 배추 자급률이 반등하였으나, 2024년 국내 배추 수급 불안 및 신선배추 할당관세 시행 등으로 8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 2024년 1인당 배추 공급량은 49.4kg으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5%, 2.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총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순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총 공급량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배추 생산량이 감소하여 1인당 공급량이 감소하였다.

표 8-31 배추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B)	수출입량		자급률 (%)	1인당 공급량(kg)
				수입량	수출량		
2024	2,554	2,007	547	667	120	78.6	49.4
2023	2,618	2,098	521	634	114	80.1	50.6
평년	2,630	2,119	511	624	113	80.6	50.8
전년 대비(%)	-2.5	-4.3	5.0	5.1	5.5	-1.5	-2.5
평년 대비(%)	-2.9	-5.3	7.0	6.9	6.2	-2.0	-2.9

주 1) 수출입량은 배추 수출입량과 김치를 배추로 환산한 수출입량을 포함한 것으로, 작형별 환산계수는 봄 0.45, 여름 0.40, 가을 0.52, 겨울 0.45임.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함.

2)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자급률의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은 %p를 의미함.

3)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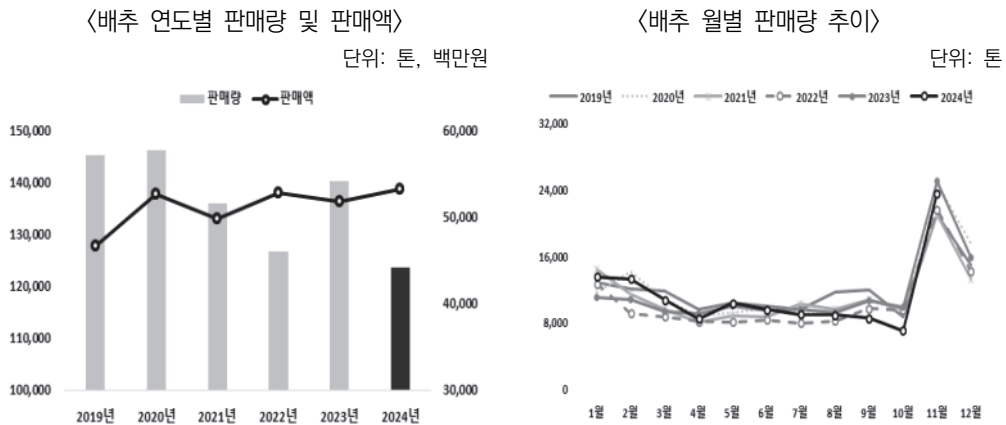
4)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1.1.4. 소비 동향

- 가구 소비자 구매 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소매유통업체 판매자료(이하 POS 데이터)<sup>2)</sup> 분석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오프라인 판매량은 연평균 1.0% 감소하였다.
  - 2024년 배추 판매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7%, 1.3% 감소하였다.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가구 중 24.4%가 배추 소비량을 2023년 대비 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량 감소 이유로는 ‘가격 상승(36.2%)’, ‘가구원 수 감소(28.4%)’, ‘식습관 변화(19.0%)’ 순이었다.
  - 2024년 배추 판매액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7%, 13.9% 증가하였다. 2024년 배추 판매량은 감소하였으나, 배추 가격 상승률이 판매량 감소율보다 커 판매액이 늘었다.
  - 분석기간(2019~2024년) 배추 오프라인 월별 판매량은 김장철(11~12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명절(설, 추석)이 포함되는 1, 2, 9월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 8-2 | 배추 연도·월별 판매량 변화



주: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경제연구실은 ‘2024년 소비정보분석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소매 유통업체의 판매 데이터 수집과 소규모 업체 대상 표본조사를 통해 POS(Point-of-Sales)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판매액과 판매량 등의 POS 데이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채널로 구분되며, 오프라인은 전국 광역시·도의 대형마트, 체인슈퍼, 조합마트, 편의점, 개인마트, 온라인은 대형마트의 판매 데이터를 포함함.

-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sup>3)</sup> 결과, 가구 소비자는 배추를 ‘월 1회(25.8%)’, ‘6개월 1회(19.3%)’, ‘연 1회(19.0%)’ 주기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추를 구매할 경우, 구매 단위는 ‘1포기(37.2%)’, ‘10포기 이상(15.3%)’ 순으로 1회 구매 시 1개를 구매하거나,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월 1회 주기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1포기 구매 비중(62.7%)이 가장 높고, 연 1회 구매하는 소비자는 10포기 이상 구매 비중(35.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량으로 김치를 담는 김장 패턴이 소비 성향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 배추 구매 시 고려 요소는 ‘가격(22.4%)’, ‘크기와 무게(20.4%)’, ‘원산지 및 재배지역(20.2%)’ 순이었다.
  - 크기가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포장 형태와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8-4 | 가구 소비자의 구매 고려 요소

단위: %

구분	가격	크고 무거움	원산지 및 재배지역	모양과 선택	안전성 및 친환경	포장 형태	작고 가벼움	브랜드
배추	22.4	20.4	20.2	18.8	10.1	5.8	2.2	0.1

자료: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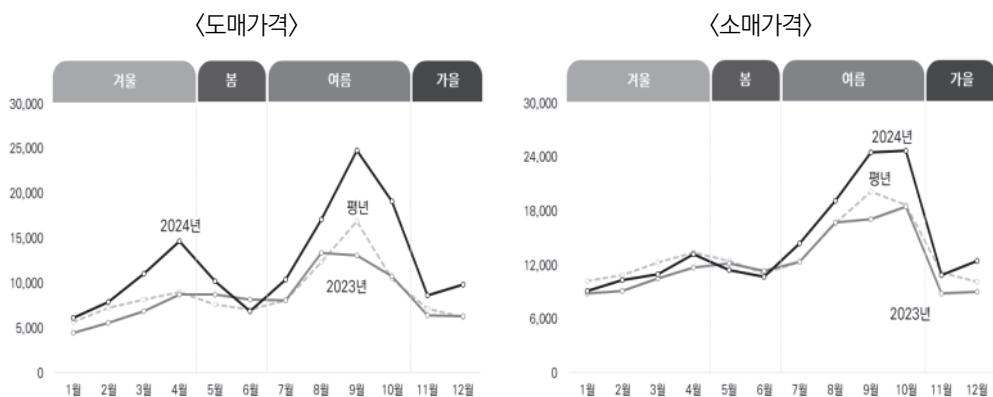
- 배추 가격 상승 시 대체 품목으로는 ‘양배추(30.4%)’, ‘쌈배추, 우거지 등 기타배추(25.1%)’, ‘무(23.3%)’ 순이었다.
  - 배추 가격 상승 시 쌈배추와 같은 기타배추보다 양배추 대체 구매가 많았고, 상추와 깻잎 등 쌈채소 구매(9.6%)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 김장 배추 구매량은 2023년 대비 9.6% 감소하였다.
  - 2024년 김장은 대부분 11월 하순~12월 상순(63.3%) 이루어졌고 배추 가격 하락 기대, 온화한 기온 등으로 2023년 대비 늦은 김장(12월 중순 이후) 비중이 18.1% 증가하였다.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526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024.12.16~2024.12.20.)

### 1.1.5. 가격 동향

- 2024년 연평균 배추 도매가격은 2023년 대비 46.1% 상승한 상품 10kg당 12,300원이다.
  - 2023년산 겨울배추 출하기(1~4월) 가격은 2월 잦은 비와 3월 예년보다 추운 날씨 등의 영향으로 작업 여건 악화 및 작황이 부진해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4.3%, 32.0% 상승한 9,950원이었다.
  - 봄배추 5월 가격은 겨울배추 저장량 및 시설배추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6.9%, 33.1% 상승한 10,220원이었다. 6월 가격은 노지 봄배추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9%, 2.7% 하락한 6,870원이었다.
  - 여름배추 출하기(7~10월) 가격은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여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7.2%, 49.5% 상승한 17,880원이었다.
  - 가을배추 출하기(11~12월) 가격은 정식기 고온과 집중호우 피해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9.4%, 42.8% 상승한 9,580원이었다.
- 2024년 배추 상품 10kg당 소매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3%, 8.1% 상승한 14,290원이었다.
  - 전 작형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농수산물 할인지원 및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상승 폭이 제한적이었다.

그림 8-3 | 배추 월별 도·소매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1.2. 수급 전망

### 1.2.1. 2024년산 겨울배추 생산 전망

- 2024년산 겨울배추(2024년 12월~2025년 2월 수확) 생산량은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9.1%, 12.5% 감소한 21만 8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육묘·정식기 고온과 집중호우로 인한 포전 유실, 고사 등으로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4.6%, 1.5% 감소한 3,501ha이다.
  - 2024년산 겨울배추는 정식기(2024년 8~9월) 주산지 기상 악화로 초기 생육이 크게 부진하였다. 초기 생육 부진으로 엽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조량이 감소하여 생육 회복이 더뎠다. 초기 생육 부진으로 엽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조량이 감소하여 생육 회복이 더뎠다. 결국이 지연되었다. 결국이 지연되었음에도 12월 가격 강세로 결국이 미숙한 겨울배추가 조기 출하되면서 구중이 크게 줄어 단수는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4.7%, 11.2% 감소한 10a당 6,223kg 내외로 전망된다.
- 2024년산 겨울배추 저장량은 2023년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관측센터 저장업체 조사 결과, 출하기 가격 강세로 2023년산 대비 저장 의향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장 작업이 시작되는 12월 하순 겨울배추 가격 강세로 저장보다 출하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 | 2024년산 겨울배추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산	3,501	6,223	217,842
2023년산	3,669	6,530	239,604
평년	3,554	7,007	249,017
전년 대비(%)	-4.6	-4.7	-9.1
평년 대비(%)	-1.5	-11.2	-12.5

주 1) 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평년은 2019년산~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1.2.2. 2025년 생산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25년 전체 봄배추 생산량은 면적 점유율이 큰 노지 봄배추 생산량 증가로 2024년 및 평년 대비 소폭 증가한 30만 8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2025년 시설봄배추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24년과 평년보다 각각 1.9%, 1.0% 감소한 3만 7천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속된 수익성 악화로 재배면적이 감소세였으나, 육묘기(12월) 시세 강세로 2025년 재배면적은 2024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수는 크게 증가하였던 2024년보다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노지봄배추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9%, 2.8% 증가한 27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여름배추 생산성 저하로 시세가 강세였고, 여름배추 공급 변동성 완화를 위한 봄배추 저장 의향이 늘면서 노지봄배추 재배면적은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0%,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6 | 2025년 봄배추(결구배추)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시설			노지			전체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2025년	319	11,647	37,212	3,244	8,332	270,333	3,564	307,546
2024년	313	12,137	37,950	3,090	8,671	267,987	3,403	305,937
평년	323	11,647	37,582	3,155	8,332	262,850	3,477	306,274
전년 대비(%)	2.1	-4.0	-1.9	5.0	-3.9	0.9	4.7	0.5
평년 대비(%)	-1.0	-	-1.0	2.8	-	2.8	2.5	0.4

주 1) 시설, 노지, 전체 봄배추는 기타배추를 제외한 결구배추만을 의미함.

2) 2025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3) 평년은 2020~2024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2025년 여름배추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평년과 비슷하고 2024년 대비 9.3% 증가한 21만 3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연작 피해로 인한 휴경 및 대체작목 전환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8%, 3.2% 감소한 4,924ha 내외로 전망된다.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2025년 가을배추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24년 대비 7.1% 증가하고 평년과 비슷한 124만 6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2025년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2024년 가을배추 시세 강세로 2024년 대비 0.9% 증가하나, 평년 대비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전체 배추 생산량<sup>4)</sup>은 평년과 비슷하고 2024년 대비 5.7% 증가한 212만 2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2025년 배추 재배면적은 기상악화로 전 작형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2024년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2.3. 중장기 전망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배추 전체 재배면적은 2025년 30,036ha에서 2034년 27,005ha로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이다.
  - 중장기적으로 모든 작형에서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치 소비 감소 등 식습관 변화에 따른 배추 소비 감소와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의 어려움 등 재배 기피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재배면적 감소로 국내 생산량은 연평균 1.0% 감소하여 2025년 212만 톤에서 2034년 193만 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배추 총 공급량은 2025년 262만 톤에서 2034년 250만 톤으로 연평균 0.5% 감소할 전망이다.
  - 총 공급량의 연평균 감소폭은 생산량의 감소폭보다 작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급량의 20% 내외를 차지하는 순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4) 2025년산 겨울배추 생산량이 포함된 수치이며, 2025년산 겨울배추의 경우 2025~2026년 사이에 출하되므로 2025년 생산 전망에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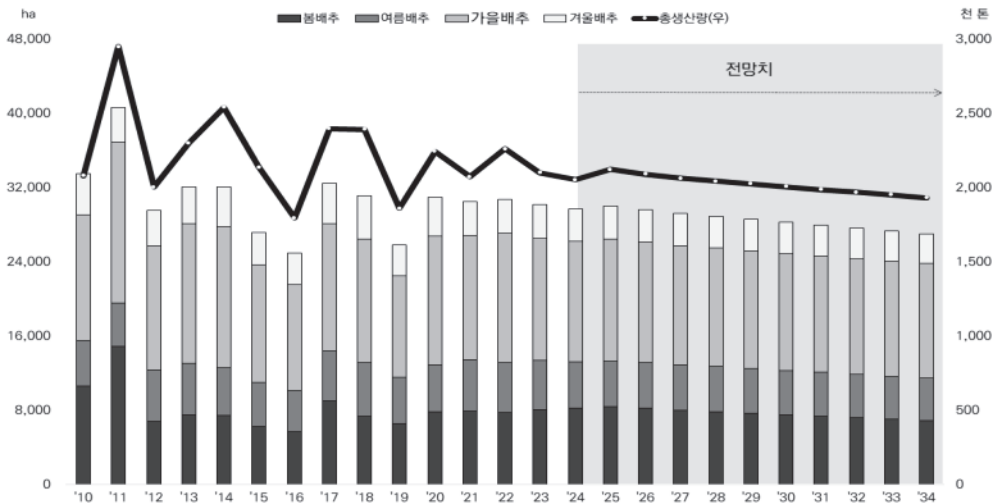
- 배추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에 따라 2025년 81.2%에서 2034년 77.3%로 하락할 전망이다. 총 공급량 감소로 배추 1인당 공급량은 2025년 50.6kg에서 2034년 49.1kg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표 8-7 배추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4	2025	2029	2034
재배면적	ha	29,771	30,036	28,575	27,005
총 공급량(A=B+C)	천 톤	2,554	2,615	2,546	2,499
국내 생산량(B)	천 톤	2,007	2,122	2,024	1,932
순수입량(C=D-E)	천 톤	547	493	522	567
수입량(D)	천 톤	667	635	670	721
수출량(E)	천 톤	120	142	148	153
자급률(B/A)	%	78.6	81.2	79.5	77.3
1인당 공급량	kg	49.4	50.6	49.5	49.1

주 1) 수출입량은 배추 수출입량과 김치를 배추로 환산한 수출입량을 포함한 것으로, 작형별 환산계수는 봄 0.45, 여름 0.40, 가을 0.52, 겨울 0.45임.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함.  
 2)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자급률의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은 %p를 의미함.  
 3)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그림 8-4 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중장기 전망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 2.1. 수급동향

### 2.1.1. 생산 동향

- 2024년 무 재배면적은 모든 작형의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9%, 7.3% 감소한 1만 8,669ha이다.
  - 봄무 재배면적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3%, 4.4% 감소한 5,615ha이다. 파종 준비기(1~2월) 무 도매가격이 높지 않았고, 2023년 봄무 출하기(5~7월) 도매가격이 산지 기 대가격보다 낮아서 시설·노지봄무 재배면적이 모두 감소하였다.
  - 여름무 재배면적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당근, 감자 등으로 작목 전환되면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2%, 2.7% 감소한 2,645ha이다.
  - 가을무 재배면적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4.5%, 8.8% 감소한 5,308ha이다. 파종 준비기(7~8월) 무 가격 상승으로 재배 의향은 높았으나, 파종기 고온으로 개체 고사, 미 발아 등이 발생하면서 파종 여건이 좋지 않아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 겨울무 재배면적은 수익성이 높은 당근으로의 작목 전환과 기상악화로 품위 저하 문제가 발생했던 이른 파종분(8월 파종) 비중이 감소하면서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6.1%, 11.0% 감소한 5,101ha이다.
- 2024년 무 생산량은 모든 작형에서 재배면적과 단수가 감소하면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4%, 14.2% 감소한 98만 8천 톤이다.
  - 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감소와 생육 초기(3~4월)에 저온으로 추대 발생하였고, 출하기(6~7월) 장마 및 고온으로 병해가 확산되면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2%,



## 2.1.2. 수출입 동향

- 2024년 무 수출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7.5%, 26.0% 감소한 3,408톤이며, 국내 무 생산량의 0.3% 수준이다.
  - 시기별로 겨울철(1~5월) 수출량은 1,819톤으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감소하였다. 겨울 무 생육기 잦은 비 등으로 품위 저하가 발생하였고, 2월 이후부터 국내 무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량은 감소하였다. 그 외 봄·여름·가을철(6~12월)은 기상여건 악화로 국내 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출량 또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감소하였다.
  - 2024년에는 총 19개국에 수출이 이뤄졌고, 수출 비중은 미국이 77.0%, 캐나다(10.3%), 베트남(3.0%)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수출국은 늘었으나, 국가별 수출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 2024년 무 수입량은 14,871톤으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37.6%, 429.7% 증가하였고, 중국에서 100% 수입되었다.
  - 시기별로 모든 계절에서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수입이 크게 이뤄지지 않는 봄·여름철의 수입량이 2023년 및 평년 대비 크게 늘었다.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2024년에 국내 무 가격이 상승하였고, 7월부터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무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표 8-9 무 수출입 동향

단위: ha, 천 톤

구분	수출					수입				
	겨울 (1~5월)	봄 (6~7월)	여름 (8~10월)	가을 (11~12월)	계	겨울 (1~5월)	봄 (6~7월)	여름 (8~10월)	가을 (11~12월)	계
2024	1,819	48	31	1,510	3,408	4,554	1,634	2,403	6,280	14,871
2023	3,479	180	63	2,768	6,491	928	130	96	154	1,307
평년	3,003	247	100	1,257	4,606	1,593	31	264	920	2,807
전년 대비(%)	-47.8	-73.3	-51.1	-45.4	-47.5	390.9	1,156.9	2,402.8	3,991.5	1,037.6
평년 대비(%)	-39.4	-80.5	-69.0	20.2	-26.0	185.9	5,205.2	811.5	582.5	429.7

주 1) 무(신성, 냉장) HS코드 0706901000의 실적임.

2)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관세청

### 2.1.3. 공급 동향

- 2024년 무 총 공급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3%, 12.2% 감소한 105만 2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2024년 기준으로 김치를 포함한 무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순수입량이 2023년 및 평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고온, 잦은 비 등의 기상악화로 국내 무 생산량이 2023년 및 평년 대비 줄면서 공급량은 감소하였다.
- 2024년 무 자급률은 김치를 포함한 수입량 증가 영향으로 2023년보다 2.4%p 감소한 93.9%이다.
  - 2024년은 무 가격 상승과 7월부터 시행된 할당관세 등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늘면서 자급률이 2023년 및 평년 대비 낮아졌다.
- 2024년 무 1인당 공급량은 국내 무 공급량 감소 영향으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3%, 12.2% 감소한 20.3kg으로 추정된다.

표 8-10 | 무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B)			자급률 (%)	1인당 공급량(kg)
				수입량	수출량		
2024	1,052	988	64	68	3	93.9	20.3
2023	1,213	1,167	45	52	6	96.3	23.4
평년	1,198	1,151	47	52	5	96.1	23.1
전년 대비(%)	-13.3	-15.4	41.8	30.6	-47.5	-2.4	-13.3
평년 대비(%)	-12.2	-14.2	36.6	31.0	-26.0	-2.2	-12.2

주 1) 수입량은 무 수입량과 김치를 무로 환산한 수입량을 포함한 것으로, 환산계수는 0.18임.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함.

2)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자급률의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은 %p를 의미함.

3)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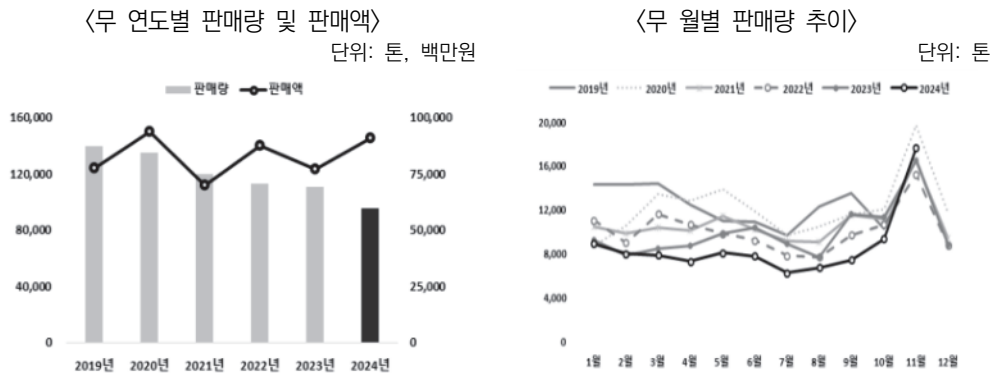
4)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2.1.4. 소비 동향

- 가구 소비자 구매 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소매유통업체 판매자료(이하 POS 데이터)<sup>5)</sup> 분석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무<sup>6)</sup> 오프라인 판매량은 연평균 7.3% 감소하였다.
  - 2024년 무 판매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3.8%, 20.1% 감소하였다.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가구 중 18.3%가 무 소비량을 전년 대비 줄였고, 소비량 감소 이유는 ‘가격 상승(38.1%)’, ‘가구원 수 감소(23.9%)’, ‘식습관 변화(15.0%)’ 순이었다.
  - 2024년 무 판매액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4%, 10.5% 증가하였다. 2024년 무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무 도·소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판매액은 상대적으로 늘었다.
  - 분석기간(2019~2024년) 무 오프라인 월별 판매량은 김장철(11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름 휴가철(7~9월) 판매량은 다른 시기보다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월별 무 구매 패턴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무 도·소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도(2022년, 2024년)의 무 판매량은 다른 연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림 8-51 무 연도·월별 판매량 변화



주: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량경제연구본부 식품경제연구실은 ‘2024년 소비정보분석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소매 유통업체의 판매 데이터 수집과 소규모 업체 대상 표본조사를 통해 POS(Point-of-Sales)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판매액과 판매량 등의 POS 데이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유통채널로 구분되며, 오프라인은 전국 광역시·도의 대형마트, 체인슈퍼, 조합마트, 편의점, 개인마트, 온라인은 대형마트의 판매 데이터를 포함함.

6) POS 데이터 상 무는 일반무 이외에 열무, 총각무 등의 기타무와 절단무가 포함되어 있음.

-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sup>7)</sup> 결과, 가구소비자의 무 구매 주기는 ‘월 1회(39.3%)’, ‘월 2회 이상(24.4%)’, ‘2개월 1회(12.9%)’ 순으로 나타났다.
  - 무를 구매할 경우, 구매 단위는 ‘1개(60.7%)’, ‘2개(10.5%)’ 순으로 1개를 구매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무 구매 빈도·단위를 고려하면 가구당 연간 무 구매량은 20.7개로 나타났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무 구매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무구매 시 고려 요소는 ‘모양과 선택(29.4%)’, ‘크기와 무게(20.7%)’, ‘가격(19.4%)’ 순이었다.
  - 크기가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포장 형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 표 8-11 | 가구 소비자의 구매 고려 요소

단위: %

구분	모양과 선택	크고 무거움	가격	원산지	안전성 및 친환경	포장 형태	작고 가벼움
무	29.4	20.7	19.4	16.2	8.7	4.2	1.4

자료: 농업관측센터

- 무 가격 상승 시 대체 품목은 ‘배추(17.0%)’, ‘대체 없음(15.2%)’, ‘오이(10.3%)’, ‘양파(9.5%)’, ‘양배추(7.7%)’ 순이었다.
  - 김장을 대체할 수 있는 배추로 가장 대체가 많이 되었고, 요리 부식 재료(양파) 또는 식감이 비슷한 품목(오이)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 구입처는 ‘백화점·대형마트(31.1%)’, ‘도매·재래시장(29.1%)’, ‘인근 슈퍼·상가(20.2%)’ 순이었다.

| 표 8-12 | 가구 소비자의 무 구입처

단위: %

구분	백화점·대형마트	도매·재래시장	인근 슈퍼·상가	로컬푸드 매장	지인 구매	직거래	인터넷 쇼핑몰	직접 재배
무	31.1	29.1	20.2	6.5	5.0	4.0	3.4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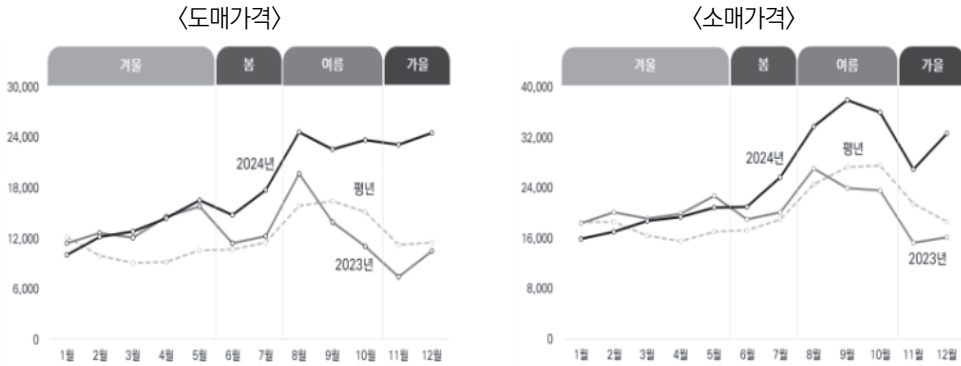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526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024.12.16~2024.12.20.)

### 2.1.5. 가격 동향

- 2024년 연평균 무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1.7%, 51.0% 상승한 18,090원이다.
  - 겨울무 출하기(1~5월) 가격은 2023년 대비 1.0% 하락, 평년 대비 29.2% 상승한 13,210원이었다. 한파로 겨울무 동해가 발생했던 2023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2~3월 잦은 비로 인해 2023년산 겨울무 품위 저하와 비상품 증가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평년보다 상승하였다.
  - 봄무 출하기(6~7월) 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6.9%, 46.6% 상승한 16,290원이었다. 시설·노지봄무 재배면적이 모두 감소하였고, 생육기 가뭄 등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높게 형성되었다.
  - 여름무 출하기(8~10월) 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8.9%, 49.2% 상승한 23,690원이었다. 8월 가뭄과 9~10월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여름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또 봄무 생육 부진으로 대량수요처의 가공용 무 저장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여름철 비축량이 부족하여 시장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상승하였다.
  - 가을무 출하기(11~12월) 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64.0%, 107.7% 상승한 23,690원이었다. 대량수요처의 무 비축량 부족이 지속되었고, 가을무 파종기 고온 등으로 결주가 늘어 출하 가능한 면적이 감소하면서 2023년 및 평년 대비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였다.
- 2023년 연평균 무 상품 20kg당 소매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4.1%, 25.9% 상승한 25,400원이었다.
  - 전반적인 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소매가격도 2023년 및 평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등의 영향으로 소매가격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그림 8-61 무 월별 도·소매가격 동향



주: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2. 수급 전망

### 2.2.1. 2024년산 겨울무 생산 전망

- 2024년산 겨울무(2024년 11월~2025년 4월 수확) 생산량은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10.9%, 16.7% 감소한 31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6.1%, 11.0% 감소한 5,101ha이다. 수확성이 높은 당근 등으로 작목 전환되면서 제주 동부(구좌, 성산 등)와 서부(대정 등)지역 모두 면적이 감소하였고, 전년도 작황 부진으로 출하가 어려웠던 이른 파종분(8월 파종) 면적이 감소한 영향이다.
  - 단수는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5.1%, 6.4% 감소한 6,183kg/10a로 전망된다. 8월 파종분(2024년 11~12월 수확)은 파종기 고온으로 결주가 늘었으며, 생육기까지 지속된 고온과 잦은 비로 병충해(무름병, 벼룩잎벌레)가 발생하여 비상품 비중이 늘었다. 9~10월 파종분(2025년 1~4월 출하)은 10월 중순 발생한 조풍 피해와 11월 집중 호우 등으로 저지대(50m 이하) 포전 위주로 결주 및 생육 불균형이 확산되었고, 최근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생육은 다소 지연되었다.
- 2024년산 겨울무 저장량은 2023년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장업체 조사 결과, 출하기 무 가격이 상승하였고, 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저장 의향

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4년산 겨울무 출하 초기 단계이며, 저장 시기 (2025년 2~4월)의 무 가격과 작황 등에 따라 저장 의향은 변동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저장 시기는 겨울무 생육지연 및 잦은 비로 저장이 늦었던 2023년산과 비슷한 3월부터 일부 시작 예정이며, 출하는 2025년 4~6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13 | 2024년산 겨울무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산	5,101	6,183	315,429
2023년산	5,435	6,514	354,020
평년	5,735	6,607	378,890
전년 대비(%)	-6.1	-5.1	-10.9
평년 대비(%)	-11.0	-6.4	-16.7

주 1) 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2.2. 2025년 생산 전망

- 2025년 전체 봄무 생산량은 면적 비중이 큰 노지 봄무 생산량이 늘면서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5%, 2.6% 증가한 9만 8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2025년 시설봄무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24년 대비 19.1% 증가하나, 평년 대비 38.5% 감소한 3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2024년산 겨울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설봄무 재배면적은 2024년보다 늘었으나, 겨울 저장무의 출하 장기화와 노지봄무 조기 출하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25년 노지봄무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3%, 5.0% 증가한 9만 5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9%, 5.0% 증가한 862ha로 전망된다. 시설봄무와 마찬가지로 2024년산 겨울무 생산량 및 저장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철(7~8월) 저장 수요가 늘면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 현재 파종 준비 전 단계이며, 파종기 무가격과 파종 여건 등에 따라 재배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표 8-14 | 2025년 봄무(일반무)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시설			노지			전체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재배면적	생산량
2025	25	12,680	3,174	862	11,003	94,895	887	98,069
2024	21	12,695	2,666	814	10,671	86,860	835	89,526
평년	41	12,680	5,157	822	11,003	90,410	862	95,566
전년 대비(%)	19.2	-0.1	19.1	5.9	3.1	9.3	6.3	9.5
평년 대비(%)	-38.5	-	-38.5	5.0	-	5.0	2.9	2.6

주 1) 시설, 노지, 전체봄무는 기타무를 제외한 일반무만을 의미함.

2) 2025년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3) 평년은 2020~2024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2025년 여름무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9.2%, 7.0% 증가한 10만 8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2024년 여름무 출하기(8~10월) 가격 상승과 타 작목에서 무로 작목 전환되면서 2024년 대비 3.6% 증가, 평년과 비슷한 2,740ha로 추정된다.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2025년 가을무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1.3%, 6.1% 증가한 46만 6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2024년 가을무 출하기(11~12월)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6.1%, 6.1% 증가한 6,163ha로 추정된다.
- 2025년 전체 무 생산량<sup>8)</sup>은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7.3%, 3.8% 증가한 115만 9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2024년 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모든 작형에서 면적이 증가하여, 재배면적은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4%, 1.4% 증가한 2만 58ha로 추정된다.

8) 2025년산 겨울무 생산량이 포함된 수치이며, 2025년산 겨울무의 경우 2025~2026년 사이에 출하되므로 2025년 생산 전망에서는 별도 언급하지 않음

### 2.2.3.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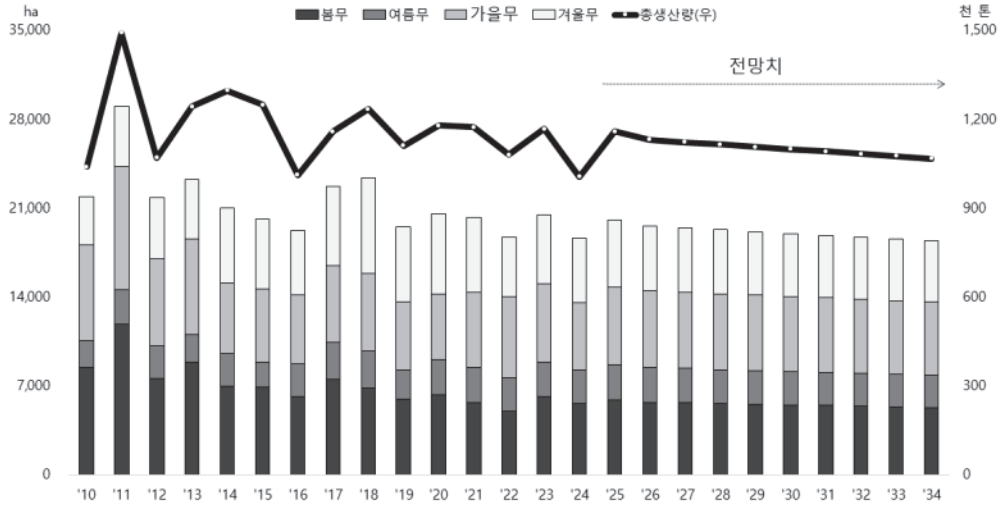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무 전체 재배면적은 2025년 2만 58ha에서 2034년 1만 8,420ha로 연평균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의 경우, 2024년 대비 재배면적은 증가하나, 식습관 변화로 인한 무 소비 감소, 주산지 수익성 높은 품목으로의 작목 전환 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무 총 공급량은 2025년 120만 9천 톤에서 2034년 112만 3천 톤으로 연평균 0.8% 감소할 전망이다.
  - 김치를 포함한 수입량이 늘면서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순수입량이 증가하나, 재배면적 감소로 무 총공급량은 감소 추세를 보일 예정이다.
- 무 자급률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95%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수입량이 늘면서 자급률이 95% 미만으로 떨어지나, 2025년부터 다시 무 자급률은 96%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 1인당 공급량은 2025년 23.4kg에서 2034년 22.1kg 감소할 전망이다.
  - 2024년 국내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저효과로, 2025년 1인당 공급량은 23.4kg으로 2024년 대비 증가하나, 이후 1인당 공급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15 무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4	2025	2029	2034
재배면적	ha	18,669	20,058	19,118	18,420
총 공급량(A=B+C)	천 톤	1,052	1,209	1,159	1,123
국내 생산량(B)	천 톤	988	1,159	1,106	1,067
순수입량(C=D-E)	천 톤	64	50	53	57
수입량(D)	천 톤	68	55	58	62
수출량(E)	천 톤	3	5	5	5
자급률(B/A)	%	93.9	95.9	95.4	95.0
1인당 공급량	kg	20.3	23.4	22.5	22.1

주: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그림 8-71 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중장기 전망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 3.1. 수급 동향

#### 3.1.1. 생산 동향

- 2024년 당근 재배면적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3%, 6.8% 증가한 2,864ha로 추정된다.
  - 봄 당근 재배면적은 2023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산 겨울당근 과잉 생산 우려로 출하 시기가 겹치는 시설봄당근의 타 품목(감자 등)으로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여름당근 재배면적은 2023년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출하기 및 2024년 파종기 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강원지역 배추·무 등에서 당근으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가을당근 재배면적은 2023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름당근 출하 기간 장기화 및 겨울당근 조기 파종 영향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나, 금년도 가격 강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2023년산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출하기 및 2024년 파종기 가격 강세로 제주지역 무 등에서 당근으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2024년 당근 생산량은 2023년과 평년보다 각각 7.6%, 8.3% 감소한 8만 톤 내외로 추정된다. 봄당근을 제외한 모든 작형의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단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표 8-171 당근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2024	2023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체	면적	2,864	2,747	2,681	4.3	6.8
	생산량	80	85	86	-7.6	-8.3
봄	면적	940	957	950	-1.8	-1.0
	생산량	23	26	27	-11.5	-14.4
여름	면적	418	385	384	8.8	9.1
	생산량	6	6	7	-3.7	-17.8
가을	면적	164	160	175	2.2	-6.5
	생산량	5	6	6	-6.0	-14.9
겨울	면적	1,342	1,245	1,173	7.8	14.4
	생산량	44	47	45	-6.1	-2.2

주 1) 2023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2) 2024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3)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 3.1.2. 수출입 동향

- 2024년 당근 수입량은 11만 8천 톤으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6%, 16.5% 증가하였다. 2024년 2월 이후 국산 당근 가격 강세 지속과 수입 당근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가 5월부터 시행되면서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 국가별 수입량은 수입 비중이 큰 중국(연중 수입)이 11만 2천 톤으로 2023년 대비 13.1% 증가하였고, 베트남(1~5월 수입)은 5천 톤으로 51.6% 감소하였다.
  - 2024년 수입 당근의 국가별 점유율은 중국이 95%, 베트남이 5% 내외이다.
- 2024년 당근 톤당 수입단가는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0%, 8.1% 상승한 434달러였다. 중국산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7.7%, 11.4% 상승한 436달러였으며, 베트남산은 각각 14.7%, 24.1% 하락한 382달러였다.
  - 중국산 당근의 경우 할당관세 영향으로 수입량이 증가하였다. 다만, 중국 내 작황 부진 영향 등으로 수입단가가 상승하였다. 베트남산 당근은 타국으로의 수출선을 모색함에 따라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 2024년 수입 당근 10kg당 국내 판매 가능 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6.6%, 20.2% 상승한 8,470원이었다.
- 국가별로 중국산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1.0%, 23.6% 상승한 8,510원, 베트남산은 10.1%, 13.6% 하락한 5,890원이었다.

표 8-18 당근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수출	수입			
	전체	중국	베트남	기타	전체
2024	320	112,349	5,337	10	117,695
2023	292	99,361	11,035	-	110,395
평년	220	92,465	8,688	69	101,043
전년 대비(%)	9.5	13.1	-51.6	-	6.6
평년 대비(%)	42.0	21.5	-38.6	-90.2	16.5

- 주 1) 당근(신선, 냉장) HS코드 0706101000의 실적임.  
 2) 기타 수입국은 호주, 우즈베키스탄 등임.  
 3)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관세청

### 3.1.3. 공급 동향

- 2024년 당근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순수입량이 증가하여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6%, 3.8% 증가한 19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 1인당 공급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5%, 3.9% 증가한 3.8kg, 자급률은 2023년 대비 3.0%p 감소한 40.7%로 전망된다.

표 8-19 | 당근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B)			자급률 (%)	1인당 공급량(kg)
				수입량	수출량		
2024	197	80	117	117	0	40.7	3.8
2023	195	85	110	110	0	43.7	3.8
평년	189	86	101	101	0	44.8	3.7
전년 대비(%)	0.6	-6.3	5.9	5.9	-6.3	-3.0	0.5
평년 대비(%)	3.8	-7.1	15.8	15.8	21.6	-4.1	3.9

주 1)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자급률의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은 %p를 의미함.

2)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3)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3.1.4. 소비 동향

- 2024년 가구 소비자의 당근 소비 행태를 알아보기 위한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sup>9)</sup> 결과 당근 소비량이 전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70.9%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당근 소비량이 늘었다(15.5%)’는 가구가 ‘전년 대비 소비량이 줄었다(13.6%)’는 가구보다 많았다.
  - 당근 소비량 증가 이유는 ‘건강(미용)에 좋아서(43.9%)’, ‘식습관 변화(27.6%)’, ‘외식 감소(7.1%)’ 순이었으며, 감소 이유는 ‘가격 상승(38.2%)’, ‘가구원 수의 변화(18.6%)’, ‘식습관 변화(18.6%)’, ‘대체 채소가 많아서(15.7%)’순으로 나타났다.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526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024.12.16.~2024.12.20.)

- 가구 소비자의 당근 구입 주기는 ‘월 2회 이상(31.9%)’, ‘월 1회(29.9%)’, ‘2개월 1회(14.1%)’ 순으로 나타났으며, 당근을 구매할 경우, 구매 단위는 ‘1개(24.3%)’, ‘2개(21.8%)’, ‘3개(18.5%)’ 순으로 나타났다.
- 당근 구매 시 고려 요소는 ‘모양과 선택(31.6%)’, ‘가격(20.8%)’, ‘원산지 및 재배지역(19.3%)’ 순이었다.
  - 다음으로는 ‘안전성 및 친환경 인증 여부(10.4%)’, 크기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선호(9.6%)’, ‘포장 형태(6.4%)’ 순으로 나타났다.

표 8-20 | 가구 소비자의 당근 구매 고려 요소

단위: %

구분	모양과 선택	가격	원산지 및 재배지역	안전성 및 친환경	크고 무거움	포장 형태	작고 가벼움	브랜드
당근	31.6	20.8	19.3	10.4	9.6	6.4	1.9	0.1

자료: 농업관측센터

- 당근 구입 시 원산지 확인 여부는 ‘반드시 확인한다(72.6%)’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끔 확인한다(19.7%)’, ‘확인하지 않는다(4.0%)’, ‘원산지 확인 불가(3.7%)’ 순으로 나타났다.
  - 이 중 국산 당근만을 구입한다는 응답이 79.1%였으며, 국산과 수입 당근을 혼용하는 가구의 원산지별 평균 구매 비중은 국산이 66.4%, 수입이 3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당근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국산 당근 대비 저렴한 가격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며, 세척이 되어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또한 많았다.
- 당근 가격 상승 시 대체 품목으로는 ‘대체 없음(16.7%)’, ‘무(13.6%)’, ‘파프리카(11.5%)’, ‘오이(11.5%)’ 순이었다.
  - 대체 품목이 부재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식감 및 조리 시 색을 내는 용도로 무, 파프리카 등이 대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당근 구입처는 ‘백화점·대형마트(33.5%)’, ‘도매·재래시장(25.3%)’, ‘인근 슈퍼·상가(22.1%)’ 순이었다.

표 8-21 | 가구 소비자의 당근 구입처

단위: %

구분	백화점·대형마트	도매·재래시장	인근 슈퍼·상가	로컬푸드 매장	인터넷 쇼핑몰	직거래	지인 구매
당근	33.5	25.3	22.1	9.4	6.0	3.0	0.4

자료: 농업관측센터

- 당근구매 용도는 원물 섭취, 샐러드 속재료, 당근 라페, 주스 등 생식용으로 구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 볶음, 찌개 등의 속재료 반찬용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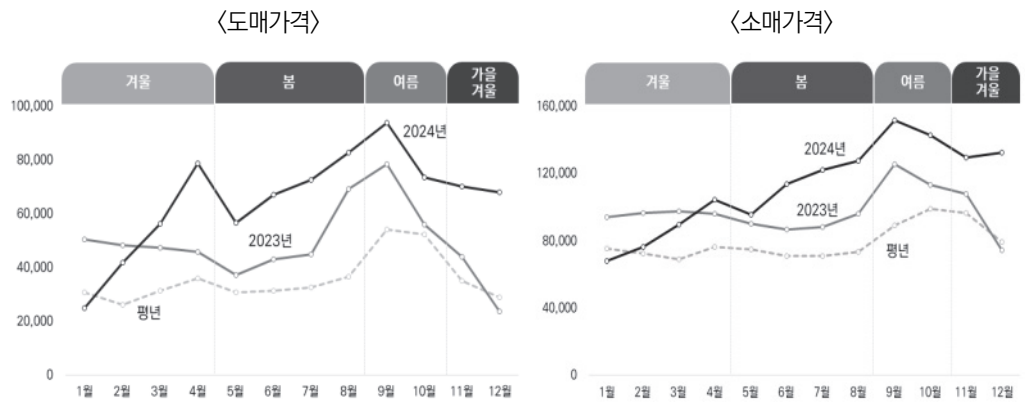
### 3.1.5. 가격 동향

- 2024년 당근 상품 20kg당 도매가격은 2023년 및 평년보다 각각 33.6%, 85.7% 상승한 65,440원이었다.
  - 봄당근을 제외한 모든 작형의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단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2024년 2월 이후 전년 및 평년 대비 높은 시세가 지속되었다.
  - 겨울당근 출하기(1~4월) 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2%, 63.1% 상승한 50,460원이었다. 겨울당근 재배면적이 늘어남과 동시에 초반 작황이 양호하여 출하 초기(1월)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2월 잦은 비로 인한 병해 발생 및 상품성 저하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 봄당근 출하기(5~8월) 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3.4%, 112.2% 상승한 69,560원이었다. 2023년산 겨울당근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겨울당근과 출하 시기가 겹치는 시설봄당근이 타 작목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봄당근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며, 생육 초기 일조량 부족 및 가뭄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 여름당근 출하기(9~10월) 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4.3%, 57.3% 상승한 83,490원이었다. 여름당근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육 초기 강수량 부족 및 유례 없는 고온이 지속되며 여름당근 단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가을당근 출하기(11~12월) 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4.6%, 116.8% 상승한 69,140원이었다. 가을당근 파종기 고온과 가뭄으로 인한 결주률이 높았으며, 생육기 기상 여건 또한 좋지 못해 병해 및 생리장해가 확산되어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2024년 당근 상품 20kg당 소매가격은 2023년과 평년보다 각각 16.1%, 44.3% 상승한 112,540원이었다.
- 도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 등의 영향으로 소매가격 상승폭은 도매가격 상승폭보다 낮았다.

그림 8-81 당근 월별 도매 및 소매가격 동향

단위: 원/20kg



주: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3.2. 수급 전망

### 3.2.1. 2024년산 겨울당근 생산 전망

- 2024년산 겨울당근(2024년 11월~2025년 3월 수확) 생산량은 2023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6.1%, 2.2% 감소한 4만 4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았던 영향으로 무 등에서 작목 전환되어 2023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7.8%, 14.4% 증가한 1,342ha로 전망된다.

- 단수는 파종기 고온·가뭄 피해 이후 생육기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등 기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병해 및 생리장해가 발생하여 2023년산과 평년보다 각각 12.9%, 14.6% 감소한 10a당 3,294kg으로 전망된다.

| 표 8-22 | 2024년산 겨울당근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산	1,342	3,294	44,204
2023년산	1,245	3,783	47,100
평년	1,173	3,855	45,206
전년 대비(%)	7.8	-12.9	-6.1
평년 대비(%)	14.4	-14.6	-2.2

주 1) 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 3.2.2. 2025년 생산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2025년 봄당근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24년과 평년 대비 각각 20.3%, 4.0% 증가한 2만 8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봄당근 재배면적은 전년 출하기 및 파종기 시세 강세로 2024년 및 평년보다 각각 5.6%, 4.0% 증가한 993ha로 전망된다.
  - 재배 형태별로 시설봄당근은 2024년과 평년보다 각각 5.3%, 3.3% 증가한 819ha, 노지 봄당근은 2024년과 평년보다 각각 6.9%, 6.3% 증가한 174ha로 전망된다.
  - 봄당근 파종 마무리 시기는 3월 중순이므로, 재배면적은 향후 당근 가격과 파종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표 8-23 | 2025년 봄당근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5	993	2,804	27,840
2024	940	2,461	23,139
평년	955	2,804	26,774
전년 대비(%)	5.6	13.9	20.3
평년 대비(%)	4.0	-	4.0

주 1) 2025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평년은 2020~2024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 2025년 여름당근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24년과 평년보다 각각 21.5%,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2024년 여름당근 출하기(9~10월) 가격 강세 영향으로 타 작목에서 당근으로 전환되면서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5%, 7.7% 증가한 428ha로 추정된다.
- 2025년 가을당근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9.2%, 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2024년 가을당근 출하기 가격이 높았던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9%, 6.9% 증가한 177ha로 추정된다.
- 2025년 전체 당근 생산량<sup>10)</sup>은 2024년과 평년보다 각각 16.9%, 6.4% 증가한 9만 1천 톤 내외로 전망된다.
  - 2024년 당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모든 작형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2025년 전체 재배면적은 2024년과 평년보다 각각 3.3%, 6.3% 증가한 2,958ha로 추정된다.

10) 2025년산 겨울당근 생산량이 포함된 수치이며, 2025년산 겨울당근의 경우 2025~2026년 사이에 출하되므로 2025년 생산 전망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 3.2.3.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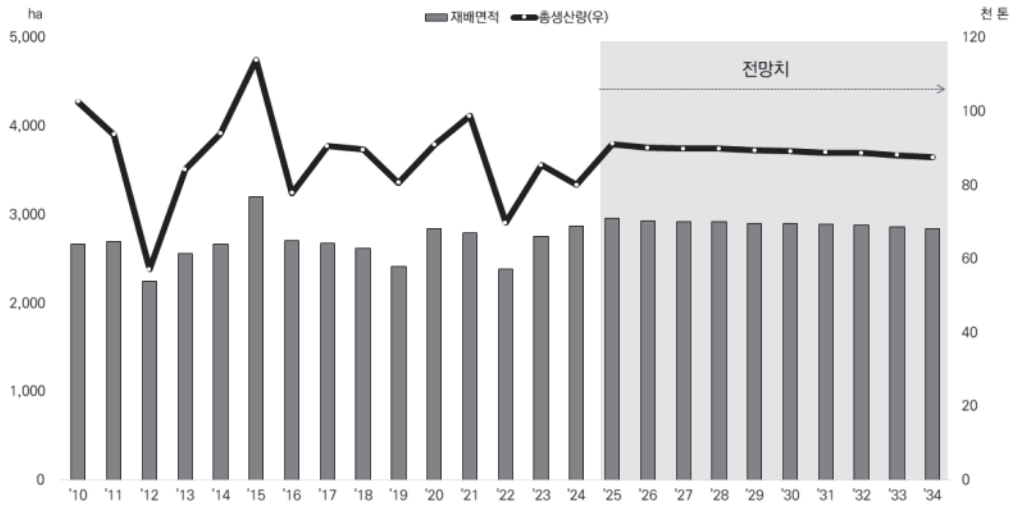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당근 재배면적은 수입량의 증가로 2025년 2,958ha에서 2034년 2,842ha로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당근 총공급량은 2025년 19만 7천 톤에서 2034년 20만 7천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재배면적 감소로 국내 생산량은 2025년 9만 1천 톤에서 2034년 8만 7천 톤으로 감소하나,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순수입량이 2025년 10만 6천 톤에서 2034년 12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당근 자급률은 2025년 46.2%에서 2034년 42.2%로 낮아질 전망이며, 1인당 공급량은 4kg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8-24 | 당근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4	2025	2029	2034
재배면적	ha	2,864	2,958	2,901	2,842
총 공급량(A=B+C)	천 톤	197	197	202	207
국내 생산량(B)	천 톤	80	91	89	87
순수입량(C=D-E)	천 톤	117	106	113	120
수입량(D)	천 톤	117	106	113	120
수출량(E)	천 톤	0.2	0.2	0.2	0.2
자급률(B/A)	%	40.7	46.2	44.2	42.2
1인당 공급량	kg	3.8	3.8	3.9	4.1

주: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그림 8-9 | 당근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장기 전망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Chapter

## 4

## 양배추

## 4.1. 수급 동향

## 4.1.1. 생산 동향

- 2024년 양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8%, 3.9% 증가한 7,084ha로 추정된다.
  - 봄 양배추 재배면적은 2023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시설봄양배추는 수익성이 높았던 당근, 감자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며 면적이 감소하였으나, 노지봄양배추는 출하기 가격 기대로 면적이 증가하였다.
  - 여름양배추 재배면적은 2023년 대비 9.8% 증가하였다.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높아 강원지역 배추·무 등에서 양배추로 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 가을양배추 재배면적은 2023년 대비 4.1% 증가하였다. 호남지역 양파 등에서 양배추로 전환 의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2023년 대비 5.6% 증가하였다. 전남지역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제주지역에서는 마늘에서 양배추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2024년 양배추 생산량은 2023년 대비 4.9% 증가하였으나, 평년 대비 2.6% 감소한 32만 톤으로 추정된다.
  - 봄양배추 생산량은 2023년 대비 2.7% 증가하였으나, 평년 대비 8.5% 감소하였다. 시설 봄양배추는 생육기 평년 대비 잦은 비와 적은 일조량으로 단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2023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나, 평년 대비 8.8% 감소하였다. 반면 비증이 큰 노지봄양배추는 출하기 기상 여건이 양호해 생산량이 2023년 대비 4.6% 증가, 평년 대비 6.9%

감소하였다.

- 여름양배추 생산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3%, 10.1% 증가하였다. 8·9월 고온 및 가뭄 현상이 지속되어 양배추 구 크기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가을양배추 생산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5%, 13.7% 감소하였다. 충청 및 호남 지역 조생종 가을양배추 정식기와 생육기 기상 여건 악화로 전·평년 대비 작황 부진하였으며 중생종 양배추는 일부 조기출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 겨울양배추 생산량은 2023년산 대비 7.7% 증가하였으나, 평년 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이 2023년산과 평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정식기 고온 피해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량은 평년 대비 감소하였다.

표 8-26 | 양배추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2024	2023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체	면적	7,084	6,697	6,819	5.8	3.9
	생산량	320	305	329	4.9	-2.6
봄	면적	1,458	1,438	1,541	1.4	-5.4
	생산량	63	61	69	2.7	-8.5
여름	면적	2,152	1,959	1,862	9.8	15.6
	생산량	92	87	84	6.3	10.1
가을	면적	680	653	663	4.1	2.6
	생산량	25	28	29	-7.5	-13.7
겨울	면적	2,794	2,646	2,753	5.6	1.5
	생산량	140	130	147	7.7	-4.9

주 1) 2024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 4.1.2. 수출입 동향

- 2024년 양배추 수출량은 2023년(1,849톤) 및 평년(4,945톤) 대비 각각 33.3%, 75.1% 감소한 1,233톤이며, 국내 생산량의 0.4% 수준이다.
- 양배추 수입량은 2023년(6,742톤) 및 평년(7,176톤) 대비 각각 249.0%, 202.8% 증가한 23,527톤이었다. 양배추 가격 강세 및 할당관세 영향 등으로 수입량이 늘었다.

표 8-27 | 양배추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수출					수입				
	겨울 (1~4월)	봄 (5~7월)	여름 (8~10월)	가을 (11~12월)	계	겨울 (1~4월)	봄 (5~7월)	여름 (8~10월)	가을 (11~12월)	계
2024	33	841	346	13	1,233	7,041	9,514	2,600	4,371	23,527
2023	253	793	789	14	1,849	1,362	1,742	2,532	1,106	6,742
평년	173	3,029	1,634	108	4,945	1,631	1,296	2,003	2,246	7,176
전년 대비(%)	-86.8	6.1	-56.1	-7.1	-33.3	417.1	466.1	2.7	295.4	249.0
평년 대비(%)	-80.7	-72.2	-78.8	-88.4	-75.1	331.9	634.1	29.8	94.7	202.8

주 1) 양배추(신선, 냉장) HS코드 0704901000의 실적임.

2)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관세청

### 4.1.3. 공급 동향

- 2024년 양배추 총 공급량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5%, 5.2% 증가한 34만 2천 톤으로 추정된다.
  - 국내 생산량이 평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이 크게 늘어 총 공급량은 평년 대비 5.2% 증가하였다.
  - 2024년 양배추 자급률은 수입 증가 영향으로 2023년보다 5.0%p 감소한 93.5%로 추정되며, 양배추 1인당 공급량은 6.6kg으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4%, 5.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8-28 양배추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B)	수입량		자급률 (%)	1인당 공급량(kg)
				수입량	수출량		
2024	342	320	22	24	1	93.5	6.6
2023	310	305	5	7	2	98.4	6.0
평년	325	323	1	8	5	99.2	6.3
전년 대비(%)	10.5	4.9	355.6	249.0	-33.3	-5.0	10.4
평년 대비(%)	5.2	-0.9	1,553.6	202.8	-76.3	-5.8	5.2

주 1)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자급률의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감률은 %p를 의미함.

2)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3)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4.1.4. 소비 동향<sup>1)</sup>

- 양배추 소비량은 ‘2023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7.0%로 가장 많았고, ‘증가(19.5%)’로 응답한 소비자가 ‘감소(13.5%)’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양배추 소비 증가의 이유로는 ‘건강(미용)에 좋아서(45.0%)’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식습관의 변화(29.7%)’, ‘외식감소(6.3%)’, ‘가구원 수의 변화(6.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양배추 소비 감소의 이유로는 ‘가격 상승(34.8%)’으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가구원 수의 변화(21.7%)’, ‘식습관의 변화(20.7%)’, ‘대체 채소 구매(14.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양배추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체 품목으로는 ‘양상추(15.6%)’를 구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배추(14.4%)’, ‘쌈배추(14.1%)’, ‘쌈채소(12.1%)’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 소비자의 양배추 구입 주기는 ‘월 1회’가 전체 응답의 32.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월 2회 이상(29.3%)’, ‘주 1회(14.1%)’, ‘2개월에 1회(10.5%)’ 등의 순이었다.
  - 양배추 구입 시 평균 구입 단위는 ‘1개(65.3%)’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1/2개(12.6%)’, ‘1/4개(11.1%)’, ‘2개(6.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526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024.12.16.~2024.12.20.)

- 양배추 주요 섭취 방법은 ‘생식(원물 및 샐러드)’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찜(31.9%)’, ‘반찬(국/볶음/찌개)용(18.0%)’, ‘즙·효소 등 가공용(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8-29 | 가구 소비자의 양배추 구입 주기 및 평균 구입 단위

단위: %

주 2회 이상	주 1회	월 2회 이상	월 1회	2개월 1회	3개월 1회	6개월 1회	연 1회
3.6	14.1	29.3	32.2	10.5	6.3	2.3	1.6

- 양배추 주요 구입처는 ‘백화점·대형마트’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2.4%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전통·도매시장(24.9%)’, ‘소매점(23.5%)’, ‘로컬푸드매장(9.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양배추 구매시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속성의 경우 ‘모양 및 선택’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가격(21.7%)’, ‘크기 및 무게(19.4%)’, ‘원산지 및 재배지역(14.3%)’, ‘안전성 및 친환경 인증여부(13.1%)’ 순으로 나타났다.

표 8-30 | 가구 소비자의 양배추 주요 구입처

단위: %

백화점·대형마트	전통·도매시장	소매점	로컬푸드매장	기타
32.4	24.9	23.5	9.7	9.4

#### 4.1.5.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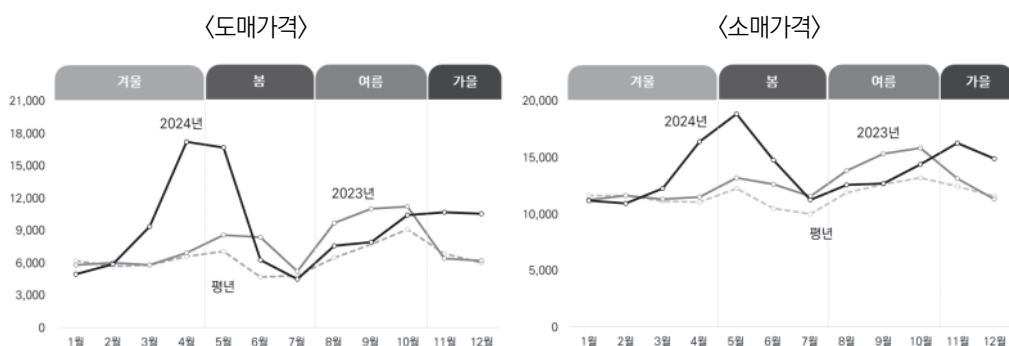
- 2024년 양배추 상품 8kg당 도매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2%, 45.5% 상승한 9,370원이었다.
  - 2023년산 겨울양배추(1~4월 출하) 가격은 9,380원이었다. 겨울양배추 중생종 출하기인 1~2월은 작황이 양호하여 평균 가격이 6,170원이었으나, 만생종 출하기인 3~4월은 작황이 부진하여 평균 가격이 13,310원이었다.
  - 봄양배추 5월 가격은 16,703원으로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5.0%, 136.5% 상승하였다. 겨울양배추 저장량과 시설봄양배추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6~7월 가격

은 호남 및 충남 지역에서 노지 봄양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며 2023년 대비 20.5% 하락, 평년 대비 13.7% 상승한 5,410원이었다.

- 여름양배추(8~10월 출하) 가격은 2023년 대비 18.5% 하락, 평년 대비 11.2% 상승한 8,680원이었다. 2023년 여름양배추 가격이 높아 2024년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며, 생산량이 늘어 2023년 대비 가격이 하락하였다.
- 가을양배추(11~12월 출하) 가격은 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9.6%, 66.4% 상승한 10,680원이었다. 2024년 정식 및 생육기 고온 피해로 작황이 부진해 구중 감소 등이 나타나 생산량이 줄며 가격이 상승하였다.
- 2024년 양배추 상품 8kg당 소매가격은 2023년과 평년 대비 각각 9.2%, 18.3% 높은 13,890원이었으며, 도매가격과 비슷한 추세로 변동하였다.

| 그림 8-10 | 양배추 월별 도매 및 소매가격 동향

단위: 원/8kg



주: 평년은 2019~2023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4.2. 수급 전망

### 4.2.1. 2024년산 겨울양배추 생산 전망

- 2024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2025년 1월~4월 출하)은 2023년산 대비 7.7% 증가하나, 평년 대비 4.9% 감소한 13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2023년산 대비 5.6%, 평년 대비 1.5% 대비 증가한 2,794ha이다.
- 단수는 2023년산 대비 2.0% 증가하나, 평년 대비 6.2% 감소한 10a당 4,994kg으로 전망된다. 2024년 정식기 고온 피해로 중생종 양배추의 생육이 부진하여 평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31 | 2024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산	2,794	4,994	139,522
2023년산	2,646	4,894	129,524
평년	2,753	5,327	146,645
전년 대비(%)	5.6	2.0	7.7
평년 대비(%)	1.5	-6.2	-4.9

주 1) 2024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평년은 2019~2023년산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4.2.2. 2025년 생산 전망

-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 결과, 평년 단수를 적용한 2025년 봄양배추 생산량은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3%, 5.8% 감소한 6만 1천 톤으로 전망된다.
  - 봄양배추 재배면적은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1%, 5.8% 감소한 1,427ha로 추정된다.
  - 시설봄양배추는 당근 등의 타 작목으로 전환 의사가 높아 2024년 대비 약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지봄양배추는 2024년 출하기 가격 하락으로 재배면적이 2024년 보다 약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향후 봄양배추 정식기인 2025년 1~4월 기상 여건에 따른 도매가격 변동에 따라 재배면적은 변동될 수 있다.

표 8-32 | 2025년 봄양배추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5	1,427	4,303	61,406
2024	1,458	4,309	62,820
평년	1,515	4,303	65,189
전년 대비(%)	-2.1	-0.1	-2.3
평년 대비(%)	-5.8	-	-5.8

주 1) 2025년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평년은 2020~2024년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5년 여름양배추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3%, 16.8% 증가한 9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배추 등 타 작목에서 전환이 예상되어 2024년 및 평년 대비 1.4%, 6.8% 증가한 2,182ha로 전망된다.
- 2025년 가을양배추 생산량(평년 단수 적용)은 2024년 및 평년 대비 15.3%, 4.3% 증가한 2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출하기(11월) 도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2024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7%, 4.3% 증가한 698ha로 전망된다.
- 2025년 전체 양배추 생산량<sup>12)</sup>은 2024년 대비 2.6% 증가한 32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양배추 전체 면적은 2024년 대비 0.7% 감소하나, 평년 대비 2.1% 증가한 7,034ha로 전망된다.

12) 2024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이 포함된 수치이며, 2025년산 겨울양배추의 경우 2025~2026년 사이에 출하되므로 2025년 생산 전망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 4.2.3.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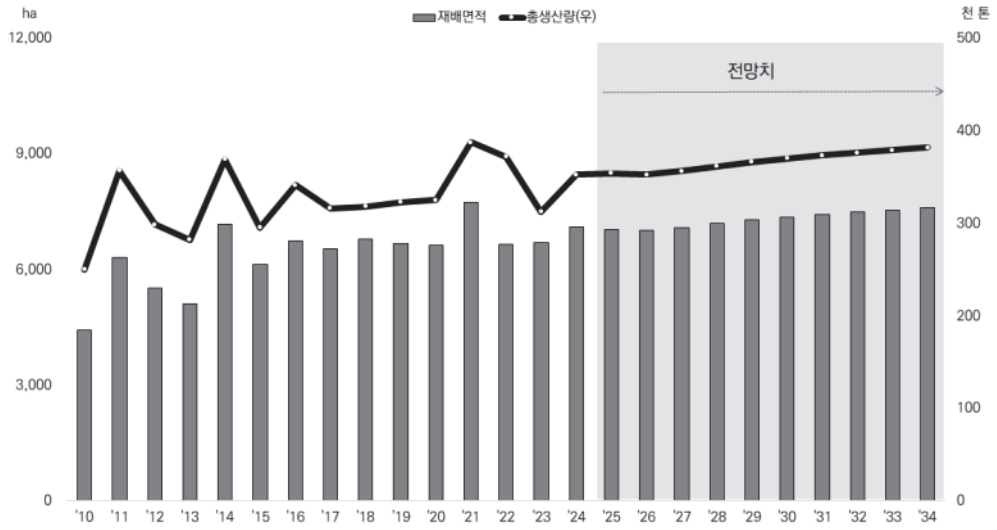
- KREI-KASMO 모형 추정 결과, 양배추 재배면적은 2025년 7,034ha에서 2034년 7,589ha로 연평균 0.8% 증가할 전망이다.
  - 건강을 중시하는 식습관의 변화가 양배추 소비를 촉진하며, 이는 재배면적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양배추 총공급량은 2025년 35만 2천 톤에서 2034년 37만 9천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총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량은 2025년 1만 2천 톤에서 2034년 1만 3천 톤으로 연평균 1.3% 증가할 전망이나, 총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 양배추 1인당 공급량은 총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6.8kg에서 2034년 7.4kg으로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33 | 양배추 중장기 수급전망

구분	단위	2024	2025	2029	2034
재배면적	ha	7,084	7,034	7,278	7,589
총 공급량(A=B+C)	천 톤	342	352	364	379
국내 생산량(B)	천 톤	320	341	353	368
순수입량(C=D-E)	천 톤	22	11	11	11
수입량(D)	천 톤	24	12	13	13
수출량(E)	천 톤	1	1	2	2
자급률(B/A)	%	93.5	97.0	97.0	97.1
1인당 공급량	kg	6.6	6.8	7.1	7.4

주: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그림 8-11 | 양배추 재배면적 및 생산량 중장기 전망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 부록 1 배추 수급 동향(2000~2024년)

I 부표 8-11 배추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전체		봄		여름		가을		겨울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0	51,801	3,149	20,405	768	10,206	385	16,413	1,617	4,777	380
2001	49,539	3,041	19,435	678	10,234	399	14,169	1,447	5,701	517
2002	39,236	2,317	13,867	365	8,018	302	11,293	1,079	6,058	570
2003	47,686	2,678	19,405	510	8,796	335	12,596	1,157	6,889	677
2004	44,623	2,865	16,941	530	7,935	313	13,858	1,415	5,889	608
2005	37,203	2,325	14,364	443	6,502	254	11,001	1,115	5,336	514
2006	42,035	2,749	14,393	421	7,051	281	14,368	1,422	6,223	625
2007	34,265	2,217	10,335	303	6,311	253	12,178	1,139	5,441	522
2008	37,285	2,585	11,061	370	6,401	247	14,693	1,505	5,130	463
2009	34,321	2,529	10,562	408	5,553	211	14,462	1,583	3,744	327
2010	33,501	2,079	10,557	356	4,929	137	13,540	1,188	4,475	398
2011	40,587	2,947	14,859	573	4,691	144	17,326	1,897	3,711	332
2012	29,524	2,002	6,819	162	5,495	203	13,408	1,298	3,802	339
2013	32,020	2,299	7,542	212	5,498	201	15,095	1,536	3,885	351
2014	32,027	2,539	7,434	364	5,140	183	15,233	1,698	4,220	293
2015	27,174	2,135	6,231	287	4,721	150	12,724	1,436	3,498	262
2016	24,902	1,793	5,711	266	4,370	141	11,429	1,128	3,392	258
2017	32,417	2,396	9,002	429	5,385	255	13,674	1,363	4,356	349
2018	31,142	2,392	7,367	351	5,727	278	13,313	1,404	4,735	359
2019	25,836	1,860	6,530	339	4,980	234	10,968	1,060	3,358	227
2020	30,950	2,243	7,816	401	5,056	222	13,854	1,340	4,224	280
2021	30,084	2,018	7,914	398	5,551	245	13,345	1,147	3,274	227
2022	31,479	2,221	8,528	338	5,363	214	13,953	1,352	3,635	317
2023	30,159	2,098	8,096	395	5,242	221	13,152	1,242	3,669	240
2024	29,771	2,007	8,230	431	4,964	194	13,076	1,164	3,501	218

주 1) 봄배추는 시설 및 노지 결구배추와 기타배추를 모두 포함함.

2) 2014년 이전 겨울배추 자료는 전라남도 행정통계임.

3) 2024년 봄배추, 여름배추, 겨울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전라남도청, 농업관측센터

## I 부표 8-2 | 배추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kg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자급률	1인당 공급량
				수입량	수출량		
2000	3,108	3,149	-41	12	54	101.3	66.1
2001	2,985	3,041	-56	1	57	101.9	63.0
2002	2,254	2,317	-63	4	67	102.8	47.3
2003	2,677	2,678	-1	74	76	100.1	55.9
2004	2,950	2,865	85	172	87	97.1	61.4
2005	2,506	2,325	180	257	77	92.8	52.0
2006	3,099	2,749	350	409	59	88.7	64.0
2007	2,652	2,217	434	495	61	83.6	54.5
2008	3,023	2,585	438	505	67	85.5	61.6
2009	2,793	2,529	264	336	71	90.5	56.7
2010	2,458	2,079	379	448	69	84.6	49.6
2011	3,403	2,947	457	527	71	86.6	68.2
2012	2,428	2,002	427	495	69	82.4	48.4
2013	2,734	2,299	435	500	65	84.1	54.2
2014	2,951	2,539	412	482	70	86.0	58.1
2015	2,571	2,135	436	507	70	83.0	50.4
2016	2,297	1,793	504	572	68	78.1	44.9
2017	2,938	2,396	543	623	80	81.5	57.2
2018	2,963	2,392	571	658	87	80.7	57.4
2019	2,456	1,860	596	692	96	75.7	47.4
2020	2,767	2,243	524	638	114	81.1	53.4
2021	2,438	2,018	421	542	121	82.7	48.1
2022	2,747	2,259	488	599	111	82.2	53.2
2023	2,618	2,098	521	634	114	80.1	50.6
2024	2,554	2,007	547	667	120	78.6	49.4

주 1) 수출입량은 배추 수출입량과 김치를 배추로 환산한 수출입량을 포함한 것으로, 작형별 환산계수는 봄 0.45, 여름 0.40, 가을 0.52, 겨울 0.45임.

2)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함.

3)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4)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I 부표 8-3 | 배추 가격 동향

단위: 원/10kg

구분	도매가격		소매가격
	경락가격	중도매인 판매가격	
2000	3,606	5,172	6,735
2001	2,755	4,240	5,481
2002	3,362	4,306	5,448
2003	4,270	6,931	7,749
2004	2,996	4,638	5,994
2005	3,604	5,201	6,456
2006	5,474	6,167	8,046
2007	4,805	5,201	6,963
2008	3,847	4,409	6,183
2009	5,123	5,836	7,839
2010	9,347	10,619	12,648
2011	6,131	7,743	8,625
2012	6,765	8,371	8,445
2013	7,118	9,021	10,038
2014	3,895	4,789	7,056
2015	5,290	5,540	7,704
2016	10,039	10,858	12,282
2017	7,710	9,066	11,408
2018	7,108	9,275	12,198
2019	6,463	7,643	10,600
2020	10,152	11,866	15,872
2021	7,668	8,942	12,459
2022	10,531	12,899	15,024
2023	8,419	10,608	12,178
2024	12,298	14,784	14,292

주 1) 경락가격은 가락시장 상품 기준 경락가격임.

2)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상품 기준 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인·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3) 소매가격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부록 2 무수급 동향(2000~2024년)

1 부표 8-4 | 무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전체		봄		여름		가을		겨울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0	40,238	1,759	21,630	751	3,377	98	14,627	882	604	28
2001	38,751	1,732	20,473	710	4,017	113	13,689	882	572	27
2002	31,387	1,412	16,534	601	2,741	89	11,372	685	741	37
2003	35,051	1,561	18,733	718	2,926	94	11,345	645	2,047	104
2004	36,303	1,710	19,394	682	2,234	72	11,629	782	3,047	174
2005	27,130	1,277	13,234	452	2,072	64	8,854	579	2,970	182
2006	30,497	1,495	14,890	548	2,442	71	9,758	667	3,407	208
2007	25,835	1,194	11,982	415	2,596	86	7,162	459	4,095	235
2008	27,308	1,402	12,554	455	2,546	76	8,948	675	3,260	196
2009	23,780	1,256	10,362	357	2,042	59	7,771	624	3,605	217
2010	21,891	1,039	8,429	298	2,161	55	7,473	473	3,828	212
2011	29,022	1,492	11,828	393	2,713	75	9,748	717	4,733	307
2012	21,839	1,070	7,600	200	2,552	72	6,826	500	4,861	298
2013	23,264	1,243	8,841	241	2,195	62	7,532	639	4,696	302
2014	21,030	1,297	6,969	307	2,608	79	5,498	482	5,955	429
2015	20,106	1,249	6,879	302	1,981	58	5,769	519	5,477	370
2016	19,255	1,012	6,134	259	2,607	88	5,414	401	5,100	264
2017	22,728	1,159	7,496	311	2,954	98	6,003	458	6,275	292
2018	23,406	1,235	6,847	281	2,900	96	6,095	467	7,564	391
2019	19,503	1,111	5,933	233	2,345	83	5,344	405	5,881	390
2020	20,519	1,179	5,994	239	2,792	114	5,147	397	6,586	429
2021	20,272	1,172	5,696	231	2,769	114	5,919	436	5,888	392
2022	18,719	1,080	5,005	204	2,650	88	6,340	484	4,724	305
2023	20,500	1,167	6,126	227	2,732	99	6,207	487	5,435	354
2024	18,669	988	5,615	197	2,645	90	5,308	384	5,101	315

주 1) 봄무는 일반무와 기타무를 모두 포함하며, 가을무는 일반무와 총각무를 모두 포함함.

2) 2014년 이전 겨울무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통계임.

3) 2024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 I 부표 8-5 | 무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kg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자급률	1인당 공급량
				수입량	수출량		
2000	1,759	1,759	-	-	-	100.0	37.4
2001	1,732	1,732	-	1	-	100.0	36.6
2002	1,412	1,412	-	-	-	100.0	29.6
2003	1,566	1,561	5	5	-	99.7	32.7
2004	1,723	1,710	13	15	2	99.2	35.8
2005	1,296	1,277	18	20	2	98.6	26.9
2006	1,524	1,495	29	32	3	98.1	31.5
2007	1,230	1,194	35	39	4	97.1	25.3
2008	1,445	1,402	43	44	1	97.1	29.5
2009	1,282	1,256	25	28	2	98.0	26.0
2010	1,077	1,039	37	40	3	96.5	21.7
2011	1,546	1,492	55	57	2	96.5	31.0
2012	1,125	1,070	55	55	1	95.2	22.4
2013	1,295	1,243	52	53	1	96.0	25.7
2014	1,341	1,297	44	46	2	96.7	26.4
2015	1,290	1,249	41	44	3	96.8	25.3
2016	1,059	1,012	47	49	2	95.5	20.7
2017	1,208	1,159	49	52	3	95.9	23.5
2018	1,284	1,235	49	53	4	96.2	24.9
2019	1,165	1,111	54	58	4	95.4	22.5
2020	1,226	1,179	48	55	7	96.1	23.7
2021	1,218	1,172	46	50	4	96.3	23.5
2022	1,126	1,080	45	49	3	96.0	21.8
2023	1,213	1,167	45	52	6	96.3	23.4
2024	1,052	988	64	68	3	93.9	20.3

주 1) 수입량은 무 수입량과 김치를 무로 환산한 수입량을 포함한 것으로, 환산계수는 0.18임.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함.

2)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3)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1 부표 8-61 무 가격 동향

단위: 원/20kg

구분	도매가격		소매가격
	경락가격	중도매인 판매가격	
2000	6,290	8,800	12,510
2001	5,060	7,340	11,900
2002	6,315	8,020	13,000
2003	7,421	10,420	15,860
2004	6,143	9,520	15,790
2005	6,899	9,660	15,790
2006	8,385	9,820	15,830
2007	9,783	10,580	16,250
2008	6,817	7,600	12,720
2009	6,931	7,700	12,520
2010	17,002	18,300	22,150
2011	11,646	12,980	17,470
2012	11,278	12,640	16,940
2013	10,633	12,480	16,760
2014	7,629	9,700	12,920
2015	9,652	10,880	15,250
2016	15,914	17,420	22,020
2017	13,041	15,280	21,190
2018	15,841	16,900	24,680
2019	11,652	12,340	18,340
2020	13,260	14,460	22,380
2021	9,887	11,200	17,790
2022	15,823	17,400	23,740
2023	12,766	15,440	20,460
2024	18,089	20,846	25,400

주 1) 경락가격은 가락시장 상품 기준 경락가격임.

2)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상품 기준 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인·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3) 소매가격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부록 3 당근 수급 동향(2000~2024년)

### 1 부표 8-71 당근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전체		봄		여름		가을		겨울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0	4,459	158	982	22	614	20	246	6	2,617	111
2001	4,226	150	1,004	23	713	21	251	6	2,258	101
2002	3,703	134	1,098	29	397	11	274	7	1,934	85
2003	3,444	129	730	18	396	12	182	4	2,136	95
2004	1,878	67	601	16	243	7	150	4	884	40
2005	3,085	120	497	13	342	11	124	3	2,122	93
2006	2,830	111	546	15	183	6	136	4	1,965	87
2007	1,997	73	591	17	151	4	148	4	1,107	47
2008	2,588	101	726	22	135	4	182	5	1,545	70
2009	2,444	97	665	19	114	4	166	5	1,499	70
2010	2,664	103	825	25	193	5	206	6	1,440	67
2011	2,692	94	689	20	282	8	172	5	1,549	61
2012	2,245	57	777	26	162	4	194	6	1,112	21
2013	2,555	84	760	23	100	3	190	6	1,505	53
2014	2,661	94	708	19	82	3	177	5	1,694	68
2015	3,199	114	1,250	42	108	3	312	11	1,529	58
2016	2,699	78	808	29	321	8	202	7	1,368	34
2017	2,671	91	878	29	165	4	220	7	1,408	50
2018	2,613	90	925	31	134	3	231	8	1,323	47
2019	2,414	81	843	27	293	8	211	7	1,067	39
2020	2,841	91	925	27	367	8	192	7	1,357	50
2021	2,786	99	1,002	33	409	9	169	6	1,206	50
2022	2,378	70	967	28	399	7	164	6	848	29
2023	2,747	85	957	26	385	6	160	6	1,245	47
2024	2,864	80	940	23	418	6	164	5	1,342	44

주 1) 2024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겨울당근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통계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Ⅰ 부표 8-8Ⅰ 당근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수출				수입			
	중국	베트남	기타	전체	중국	베트남	기타	전체
2000	-	-	10	10	9,248	-	1,211	10,459
2001	1	-	725	726	11,282	-	2,187	13,469
2002	1	-	9	10	17,652	-	631	18,283
2003	71	-	5	76	35,216	-	446	35,663
2004	-	-	7	7	60,982	-	20	61,002
2005	113	-	65	178	70,462	-	203	70,665
2006	-	-	9	9	78,819	-	392	79,211
2007	-	-	13	13	86,545	-	-	86,545
2008	46	-	252	298	75,408	-	-	75,408
2009	113	-	170	283	72,241	-	11	72,252
2010	72	-	67	139	82,634	24	-	82,658
2011	-	-	54	54	91,791	91	474	92,355
2012	-	-	347	347	91,454	23	-	91,477
2013	-	-	100	100	103,248	50	120	103,418
2014	-	-	90	90	90,002	4,623	-	94,624
2015	-	177	244	421	87,785	4,521	13	92,319
2016	-	-	915	915	94,600	5,715	141	100,456
2017	-	-	153	153	96,978	4,755	-	101,734
2018	-	-	182	182	94,697	4,921	-	99,618
2019	-	-	226	226	98,862	6,479	-	105,342
2020	-	-	197	197	89,515	11,738	-	101,253
2021	-	-	235	235	84,341	7,310	70	91,720
2022	-	-	215	215	88,593	7,651	-	96,244
2023	15	-	292	292	99,361	11,035	-	110,395
2024	-	-	320	320	112,349	5,337	10	117,695

주: 기타 수출입국가는 괌, 북마리아나군도, 대만, 미얀마, 몽골, 홍콩, 러시아, 일본 외 20개 국가임.  
 자료: 관세청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 I 부표 8-9 | 당근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kg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자급률	1인당 공급량
				수입량	수출량		
2000	169	158	10	10	-	93.8	3.6
2001	163	150	13	13	1	92.2	3.4
2002	152	134	18	18	-	88.0	3.2
2003	165	129	36	36	-	78.4	3.4
2004	128	67	61	61	-	52.3	2.7
2005	190	120	70	71	-	63.0	3.9
2006	190	111	79	79	-	58.4	3.9
2007	159	73	87	87	-	45.7	3.3
2008	176	101	75	75	-	57.3	3.6
2009	169	97	72	72	-	57.4	3.4
2010	185	103	83	83	-	55.4	3.7
2011	186	94	92	92	-	50.4	3.7
2012	148	57	91	91	-	38.5	3.0
2013	187	84	103	103	-	44.9	3.7
2014	189	94	95	95	-	49.8	3.7
2015	206	114	92	92	-	55.3	4.0
2016	178	78	100	100	1	43.9	3.5
2017	192	91	102	102	-	47.1	3.7
2018	187	90	99	100	-	47.4	3.6
2019	186	81	105	105	-	43.4	3.6
2020	192	91	101	101	-	47.3	3.7
2021	190	99	91	92	-	51.9	3.7
2022	166	70	96	96	-	42.0	3.2
2023	195	85	110	110	-	43.7	3.8
2024	197	80	117	117	-	40.7	3.8

주 1)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함.

2)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3)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부표 8-10 | 당근 가격 동향

단위: 원/20kg

구분	도매가격		소매가격
	경락가격	중도매인 판매가격	
2000	13,954	14,907	31,173
2001	15,756	17,294	35,307
2002	14,402	15,013	32,577
2003	20,435	19,477	39,185
2004	20,424	19,263	45,685
2005	18,456	18,378	47,510
2006	24,844	24,912	50,937
2007	19,406	18,278	44,750
2008	22,318	21,951	48,573
2009	25,594	25,400	51,265
2010	27,802	26,433	56,553
2011	37,988	36,901	70,690
2012	33,604	33,100	58,818
2013	51,471	54,263	94,077
2014	27,451	29,359	60,303
2015	20,925	26,044	51,885
2016	33,394	39,621	66,727
2017	31,304	40,934	79,400
2018	36,044	42,427	74,895
2019	30,029	35,606	68,997
2020	39,871	46,494	87,373
2021	24,756	31,491	65,750
2022	35,834	41,852	77,835
2023	48,976	56,102	96,940
2024	65,444	73,178	112,540

주 1) 경락가격은 가락시장 상품 기준 경락가격임.

2)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상품 기준 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인·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3) 소매가격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부록 4 양배추 수급 동향(2000~2024년)

Ⅰ부표 8-11 | 양배추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 톤

구분	전체		봄		여름		가을		겨울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2000	4,875	214	1,349	56	1,230	50	578	24	1,718	84
2001	4,533	260	1,170	75	1,146	48	501	32	1,716	105
2002	4,798	238	1,167	55	1,290	53	500	23	1,841	106
2003	4,772	245	1,113	51	1,208	57	477	22	1,974	115
2004	4,896	256	1,060	50	1,242	64	454	21	2,140	121
2005	4,467	251	961	51	1,200	65	412	22	1,894	114
2006	5,322	292	1,145	60	1,587	78	491	26	2,099	127
2007	5,138	286	1,092	60	1,596	77	468	26	1,982	123
2008	5,340	286	1,218	59	1,504	73	522	25	2,097	129
2009	5,167	282	1,002	50	1,744	90	430	21	1,991	121
2010	4,425	249	878	49	973	46	376	21	2,198	134
2011	6,289	356	1,499	81	1,698	78	642	35	2,450	162
2012	5,499	298	1,267	61	1,370	65	543	26	2,319	146
2013	5,089	282	1,123	56	1,195	57	481	24	2,291	144
2014	7,163	369	1,627	78	1,956	86	697	33	2,882	172
2015	6,110	295	1,297	58	1,675	64	556	25	2,582	148
2016	6,724	340	1,460	72	1,682	81	626	31	2,956	157
2017	6,529	316	1,580	77	1,425	64	677	33	2,847	142
2018	6,770	317	1,579	71	1,477	64	677	31	3,038	152
2019	6,668	322	1,537	73	1,765	80	659	31	2,708	137
2020	6,613	325	1,577	69	1,455	66	676	29	2,905	160
2021	7,725	387	1,745	77	1,882	85	748	33	3,350	192
2022	6,637	322	1,511	64	1,938	88	647	27	2,541	142
2023	6,697	305	1,438	61	1,959	87	653	28	2,646	130
2024	7,084	320	1,458	63	2,152	92	680	25	2,794	140

주 1) 2024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전망치임.

2) 겨울양배추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통계임.

자료: 통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농업관측센터

### Ⅰ 부표 8-12 | 양배추 공급 동향

단위: 천 톤, %, kg

구분	총 공급량 (A+B)	국내 생산량 (A)	순수입량 (B)			자급률	1인당 공급량
				수입량	수출량		
2000	215	214	1	2	1	99.7	4.6
2001	254	260	-6	-	6	102.1	5.4
2002	232	238	-6	1	7	102.5	4.9
2003	249	245	4	5	1	98.4	5.2
2004	254	256	-2	3	5	100.9	5.3
2005	243	251	-8	-	8	103.2	5.0
2006	290	292	-2	1	3	100.7	6.0
2007	289	286	3	5	2	98.9	5.9
2008	276	286	-10	3	13	103.4	5.6
2009	273	282	-9	-	9	103.1	5.6
2010	267	249	17	22	5	93.5	5.4
2011	373	356	17	23	6	95.6	7.5
2012	309	298	11	19	8	96.5	6.2
2013	301	282	19	25	6	93.7	6.0
2014	352	369	-17	1	18	104.7	6.9
2015	286	295	-9	3	12	103.0	5.6
2016	336	340	-5	6	11	101.4	6.6
2017	320	316	4	13	9	98.6	6.2
2018	321	317	3	12	9	99.0	6.2
2019	316	322	-6	12	18	101.9	6.1
2020	360	330	31	37	6	91.4	6.8
2021	385	387	-2	4	6	100.5	7.4
2022	372	371	1	4	3	99.7	7.2
2023	310	305	5	7	2	98.4	6.0
2024	342	320	22	24	1	93.5	6.6

주 1) 순수입량은 수입량과 수출량의 차이를 의미함.

2) 자급률=국내 생산량/총 공급량

3) 1인당 공급량=총 공급량/인구수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 I 부표 8-13 | 양배추 가격 동향

단위: 원/kg

구분	도매가격		소매가격
	경락가격	중도매인 판매가격	
2000	4,374	5,266	6,951
2001	2,834	3,550	5,010
2002	3,208	3,390	5,229
2003	4,442	5,713	8,460
2004	4,789	6,148	9,378
2005	4,007	4,848	7,350
2006	3,602	4,762	7,890
2007	4,641	5,625	7,215
2008	3,757	4,788	7,404
2009	4,507	5,355	7,425
2010	8,001	9,445	11,475
2011	5,477	6,926	8,985
2012	7,505	8,870	10,326
2013	6,002	7,870	9,927
2014	3,301	4,501	6,609
2015	5,441	6,202	8,961
2016	8,044	9,158	11,732
2017	7,120	8,451	11,499
2018	6,683	8,203	11,770
2019	4,892	6,038	9,000
2020	9,056	10,711	14,454
2021	4,846	6,508	10,431
2022	7,153	9,118	12,036
2023	7,604	9,513	12,717
2024	9,366	11,701	13,887

주 1) 경락가격은 가락시장 상품 기준 경락가격임.

2) 중도매인 판매가격은 상품 기준 도매시장 중도매인 상회에서 소상인·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3) 소매가격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